

김유신 관련 사료를 통해 본 시기별 인식

박 찬 흥

(국회도서관 자료조사관)

- I. 머리말
- II. 신라시기
- III. 고려시기
- IV. 조선시기
 - 1. 태종무열왕·문무왕과 신하 김유신
 - 2. 김유신에 대한 인물평
 - 3. 장수 김유신
 - 4. 충신 김유신
- V. 맺음말

<논문 요약>

김유신은 살아 있을 때는 물론이고 죽은 뒤에도 신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살아 있을 때는 태종과 문무왕을 보필하여 ‘일통삼한’의 대업을 이룩한 최고의 신하로 평가받았다. 당나라는 물론이고 고구려와 일본에서도 김유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김유신은 죽은 뒤에도 태종을 도와 대업을 이룬 ‘좋은 신하’ 또는 ‘성스런 신하’라고 인식되었다. 또, 문무왕과 함께 ‘두 명의 성인’으로 추앙되었으며, 불교적으로 33천의 한 사람이 내려온 것이 김유신이라고 인식되었다. 신라 하대에는 ‘흥무대왕’으로 추봉되어 ‘武를 일으킨 대왕’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고려시기에는 신라에 이어서 진천현 태령산의 사당에서 국가제사로 받들어졌다. 김부식은 김유신과 태종무열왕·문무왕의 관계를 빗대어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려 했는데, 김유신을 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큰 공을 이룬 인물로 평가했다. 또 윤관은 김유신이 신령스러운 기적을 많이 일으킨 장군으로 인식했고, 이승휴는 김유신이 오묘한 병서를 얻어 무예에 뛰어났다고 말했다. 고려 말의 정추도 김유신이 기이한 능력을 가진 장수이고 큰 무공을 세웠다고 인식했다.

조선시기에서도 태종무열왕·문무왕과 신하 김유신의 절대적인 신임관계로 인해 김유신이 큰 공적을 세웠다는 평가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김유신은 신라의 武를 대표하는 인물이거나 신라 왕조 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중국의 인물에 견줄만한 능력과 공훈이 있는 인물이라고 인식되었다. 조선에서도 김유신이 병법에 뛰어났고 쇠뇌와 같은 훌륭한 무기를 활용했다고 보았으며, 특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들은 김유신이 왜적을 소탕해주기를 바랐다. 김유신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武를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성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김유신의 행적을 통해 그를 충신이라고 인식했다.

주제어: 김유신, 흥무대왕,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I. 머리말

金庾信(595~673)에 대한 문헌 사료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부분의 자료가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삼국사기』 권41~42, 「열전」 1~3, 김유신 상·중·하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료이다. 고려시기와 조선시기의 김유신에 대한 사료는, 신라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김유신의 공적과 인물 평가, 김유신 관련 사적과 설화, 관련 사적 방문기 등인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려·조선시기의 김유신에 대한 사료들도 나름대로의 시기적 배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료들을 검토함으로써 김유신에 대한 후대의 인식과 특징, 김유신 관련 유적과 설화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김유신이 활동했던 신라 당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 인식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본고에서는 신라·고려·조선시기의 김유신 관련 사료들을 각 시기별로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기의 김유신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먼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금석문 등의 자료에 보이는 자료를 토대로 김유신 당대와 김유신이 죽은 뒤 신라에서 김유신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그 위상은 어떠했는지를 검토하겠다. 이어 『삼국사기』에 기록된 김부식의 史論, 『제왕운기』, 『고려사』 등 고려시기의 김유신 관련 사료를 통해 김유신에 대한 인식을 추적하려고 한다. 조선시기의 김유신 관련 사료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편년체 사서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지리지, 그리고 각종 문집류에 다양한 형태로 실려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관련 기록들에 게재된 김유신 관련 사료들을 토대로 조선시대 김유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유신 관련 사료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원문과 번역문을 검색하여 추출했고, 『흥무대왕 김유신과 江陵』¹⁾과 「金庾信關聯 文獻史料와 說話의 比較」²⁾를 참조하였다. 본고가 김유신에 대한 시기별 인식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데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II. 신라시기

『삼국사기』는 김유신 관련 사료가 가장 많이 실려 있다. 그중에서도 「열전」 1~3, 김유신 상·중·하의 자료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료이다. 3권 분량의 김유신 열전은 10권의 열전은 물론이고 전체 50권인 『삼국사기』 전체에서 보아도 매우 많은 분량이다. 김유신 한 사람의 열전에 이렇게 큰 비중을 둔 것은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 있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삼국사기』의 편찬자 김부식이 김유신을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열전」 김유신 하에 따르면, 김유신 열전은 김유신의 玄孫인 金長淸이 지은 『金庾信行錄』에서 인용하여 편찬했다고 한다. “유신의 현손으로 신라의 執事郎인 장청이 [유신의] 행록 10권을 지어 세상에 전해 오는데, [거기에는] 꾸며 만든 말이 자못 많으므로 이를 줄이고 그중에서 기록할 만한 것을 취하여 傳을 지었다.”고 했다. 김유신 열전의 기록은 신라 당대의 사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유신 열전은 김유신의 조상과 출생부터 연대순으로 주요 활동과 사망, 후손들까지 서술하고 마지막에 김부식의 사론으로 끝을 맺었다. 김장청이 지은 『김유신행록』은 아마도 김유신을 영웅시하고 추앙하는 이

1) 흥무대왕 김유신 선양회, 2013, 『흥무대왕 김유신과 江陵』, 흥무대왕 김유신 선양회

2)朴成柱·金秀旻, 2008, 「金庾信關聯 文獻史料와 說話의 比較」 『新羅文化』 31.

야기와 설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유신 열전에도 설화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도 김유신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태종무열왕 2년(655) 10월에 왕이 딸 智照를 내려 김유신과 혼인시켰다는 기록과, 문무왕 9년(669) 고구려 멸망 후 목장 6곳을 김유신에게 하사했다는 기록 등이 열전에 없는 사료이고, 그 밖에는 김유신이 수행한 전쟁 관련 기사가 대부분이다. 또 「열전」 7에 김유신 휘하에서 공을 세운 열기와 비령자를 따로 열전으로 기록했다.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조의 기록들은 김유신을 후대에 의도적으로 높이려는 흔적이 발견된다. 「열전」과 「신라본기」의 기록을 비교하면, 상대편에 없는 사료도 있는데, 같은 사료라도 내용에 차이가 있다. 본기가 국왕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사항에 비중은 둔 반면, 열전은 개인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비담의 난에 대한 서술을 보면, 본기에서는 비담이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했다는 사실만 간략히 기술했으나, 열전에서는 김유신이 주도적으로 진압했다고 서술하여 철저하게 김유신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김춘추 즉위 기사의 경우, 본기에서는 진덕왕이 죽자 상대등 알천이 왕위를 굳이 사양하여 김춘추가 마지못해 즉위한 것처럼 서술되었으나, 열전에서는 김유신이 알천과 함께 논의하여 추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양자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³⁾.

특히 태종무열왕 8년(661) 5월 9일 고구려와 말갈이 북한산성을 공격한 기사를 보면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신라본기」에는, 북한산성 성주 冬陁川이 20여 일 간 맞서 싸우다가 “식량이 다 떨어지고 힘이 지쳐서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에 빌었더니 갑자기 큰 별이 적의 진영에 떨어지고 또 천둥과 비가 내리며 벼락이 쳤으므로 적이 두려워서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⁴⁾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 「열전」 김유신에서는,

3) 朱甫暉, 2007, 「金庾信의 政治志向-연구의 活性化를 기대하며-」 『新羅史學報』 11, 9~10쪽.

김유신이 ‘신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렸더니 하늘의 변괴가 생겼다고 기록했다. 동타천의 행위가 김유신의 행위로 뒤바뀐 것이다.

이것은 열전이 김장청의 『김유신행록』을 근간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김유신행록』은 혜공왕 6년(770)에 일어난 김용의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타격을 입고 몰락해 가고 있던 김유신 후손이 김유신계의 복권을 위해 김유신을 顯彰함으로써 집안의 과거 위상을 회복시키려는 의도에서 쓰여졌다⁵⁾. 그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의 활약도 김유신의 것으로 바뀌어서 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과장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려서 썼다고 하더라도 김유신 열전은 김유신 중심으로 변경·과장된 서술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김유신은 660년 대각간, 668년 태대각간의 관등을 받았던, 당대 최고의 장수이자 신료였다. 김유신의 누이 文姬는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왕비가 되었고, 다시 태종은 655년 딸 智照를 김유신에게 시집보냈다. 문무왕은 태종과 문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으니, 김유신과도 혈연적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김유신에 대한 신라 당대의 평가는 당연히 매우 높았고, 이러한 인식은 당나라나 일본 등에도 그대로 전해졌다.

가-① 진덕왕 태화 원년 무신(648년)에 (김)춘추는 (앞서) 고구려에 청병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마침내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를 요청하였다. 태종황제가 “너희 (김)유신의 명성을 (내가 이미) 들었는데, 그 사람됨이 어떠한가?”하니, (김)춘추가 대답하기를 “유신은 비록 다소 제주와 지락이 있으나 만약 황제의 위엄을 빌리지 않으면 어찌 쉽게 걱정거리인 이웃 나라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황제는 “참으로 군자의 나라로구나!”하였다.⁶⁾

② 당나라와 신라가 백제를 합동으로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이 싸움에서

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8년(661) 5월 9일

5) 李基白, 1987, 「金大問과 金長淸」 『韓國史市民講座』 1, 111~112쪽.

6) 『삼국사기』 권41, 「열전」 1, 김유신 상

(김)유신의 공이 많았다. 이에 당나라 황제가 그것을 듣고는 사신을 보내 그를 포상하고 칭찬하였다. 장군 (소)정방은 (김)유신 · (김)인문 · (김)양도 세 사람에게 “나는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는 명을 받았소. 지금 백제의 땅을 얻었으니 공들에게 나누어 주어 食邑으로 삼게 하여 그 공에 보답코자 하니 어떻소?”라고 말하였다. (김)유신은 …… 라고 대답하고 끝내 받지 않았다.⁷⁾

③ (김)유신이 일찍이 추석날 밤에 자제들을 거느리고 대문 밖에 서 있는데 문득 서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었다. 유신은 고구려 첩자임을 알아차리고는 불러서 …… 드디어 그를 위로하여 보냈다. 고구려인들이 이를 듣고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유신이 재상으로 있으니 가볍게 여길 수 없구나.”라고 말하였다⁸⁾.

④ 丁未(9월 26일) 中臣內臣이 沙門 法辨 · 秦筆을 사신으로 삼아 신라의 上臣 大角干 庾信에게 배 1척을 내려주어, (金)東巖 등에게 딸려 보냈다. 庚戌(29일) 布勢臣耳麻呂를 사신으로 삼아 新羅王에게 調을 운반하는 배 1척을 주고 東巖 등에게 딸려보냈다.⁹⁾

김유신은 이미 당나라에도 그 이름이 전해져서 648년 김춘추가 당나라에 갔을 때 당나라 태종이 김유신의 인물됨을 물어볼 정도였다(가-①). 신라 국내에서 이미 김유신의 위상이 높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실제로 백제 멸망 전쟁 과정에서 김유신은 큰 공을 세웠고, 이에 당나라 고종이 김유신에게 포상을 했으며, 소정방이 바로 김유신 등을 회유하려고 했고, 그 첫 번째 회유 대상이 김유신이었던 것이다(가-②). 이것은 당나라 측에 김유신이 신라의 신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신라인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유신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평가는 신라인이나 당나라인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구려인이 “(김)유신이 재상으

7) 같은 책, 권42, 「열전」 2, 김유신 중

8) 같은 책, 권42, 「열전」 2, 김유신 중

9) 『일본서기』 권27, 天智天皇 7년(668) 9월 26일·29일

로 있으니 가볍게 여길 수 없구나.”라고 말했다는 기록은(가-③) 아마도 과장되었거나 후대에 윤색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고구려 측에서 신라의 김유신의 위상과 명성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668년 일본 정부가 신라 사신 김동엄이 돌아갈 때 신라왕에게 배한척을 보내면서 동시에 김유신에게도 배한척을 함께 보냈다는 사실은(가-④), 고구려 멸망 당시에 일본 측에서 김유신을 신라왕에 버금가는 존재로 인식했음을 알려준다.

- 나.① 왕과 여러 신하가 함께 의논하고서 대답하였다. …… 생각건대 先王(김춘추는 매우 훌륭한 덕을 지닌 분이시다. 더구나 살아생전에 김유신이라는 어진 신하[良臣]를 얻어 한 마음으로 정사에 힘써 三韓을 통일하였으니 그가 이룬 功業이 많지 않다 할 수 없다¹⁰).
- ② 神文王 때 …… 신라왕이 글을 올려 답하기를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성스런 신하[聖臣] 김유신을 얻어 삼국을 통일하였기 때문에 태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당나라 황제가 그 글을 보고 생각하기를 그가 태자로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이르기를 “33천의 한 사람이 신라에 내려가 유신이 되었다.”고 한 일이 있어서 책에 기록한 바가 있는데, 이에 꺼내어 그것을 살펴보니 놀랍고 두렵기 그지없었다. 다시 사신을 보내어서 태종이라는 칭호를 고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하였다¹¹).
- ③ 제31대 神文大王의 이름은 政明이며, 성은 김씨이다. …… 왕은 이를 이상히 여겨 日官 金春質(또는 春日)에게 점을 치도록 하였다. 그가 아뢰기를, “돌아가신 부왕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三韓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또 金公庾信도 33천의 한 아들로서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와 대신이 되었습니다. 두 성인[二聖]이 덕을 같이 하여 나라를 지킬 보배를 내어주려 하시니, 만약 폐하께서 해변으로 나가시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보배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용이 대답하기를, “ …… 이제 대왕의 아버님께서 바다 속의 큰 용이 되셨고, 유신은 다시 天神이 되셨는데, 두 성인[二聖]이 같은 마음으로, 이처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를 보내 저를 시켜 이를 바치는 것입니다”라고

10)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8, 신문왕 12년(692)

11) 『삼국유사』 권1, 「紀異」, 太宗春秋公

하였다¹²⁾.

- ④ 후일 흥덕대왕이 공[김유신]을 봉하여 興武大王이라 하였다¹³⁾.
- ⑤ 옛날에 裕神 角干(김유신)이 세상에 나서 大業을 이루어 나라의 보배가 되었기에 삼가 이 대석탑을 만들었다¹⁴⁾.
- ⑥ 대사의 이름은 심희이고, 속성은 김씨이니, 그 선조는 임나의 왕족이다. …… 먼 조상인 興武大王(김유신)은 鼇山의 정기를 타고, 鰈水의 정기에 올라서, 문신의 길조를 잡아 재상의 뜰에 나왔고, 무신의 지략을 잡아 왕실을 높이 부양하였으며, 평생토록 □□하여 두 적(고구려와 백제)이 영원히 안정되고 靑郡(현도군, ‘한반도’를 가리킴)의 사람들이 능히 세 조정을 받들어 멀리 辰韓의 풍속을 어루만졌다. …… (마멸)(무신의) 지략을 잡아 왕실을 높이 부양하였으며 ……¹⁵⁾

김유신이 죽은 뒤에도 신라에서 김유신은 매우 높이 평가되었다. 신문왕 때, 김유신은 ‘어진 신하[良臣] 또는 ‘성스런 신하[聖臣]’로서 태종 무열왕 김춘추를 도와 삼한을 통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나-①·②). 또한 김유신은 동해의 용이 된 문무왕과 함께 ‘두 성인[二聖]’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적어도 문무왕과 함께 ‘聖人’으로 인식되거나 불렸다는 것이 만파식적 설화의 내용이다(나-③). 특히 김유신은 33天의 한 사람이 내려온 것으로 인식되었는데(나-②·③), 불교적으로 윤색된 것이지만 신라에서 당시 김유신을 그만큼 높이 평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김유신에 대한 이러한 평가의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興武大王’으로 추봉한 것이다. 『삼국유사』 「김유신」에서는 흥무대왕이라 추봉한 시기가 경명왕 때라고 했지만¹⁶⁾, 일반적으로는 흥덕왕 때 추봉했다는 「열전」의 기록을 따른다. ‘興武大王’이란 ‘武를 일으킨 대왕’이란 뜻인데, 김유신을 大王이라고 불렸다는 점에서 그를 신라의 왕과 동등한 위

12) 같은 책, 권2, 「紀異」 2, 萬波息笛

13) 『삼국사기』 권43, 「열전」 3, 김유신 하

14) 「仲和三年銘 金銅舍利器記」(883)

15) 「鳳林寺 眞鏡大師塔碑」(924)

16) 『삼국유사』 권1, 「紀異」, 金庾信

상으로 평가했다는 의미이다. 또 ‘武를 일으켰다’는 말은 김유신이 장수로서 보여준 능력을 높이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사상 왕이 아닌 신하에게 ‘대왕’을 추봉한 예는 김유신이 유일하다. 그만큼 신라에서 하대에 이르기까지 그를 높이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

김유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신라 하대의 금석문에서도 나타난다. 김유신이 “大業을 이루어 나라의 보배가 되었”다거나(나-⑤), “문신의 길조를 잡아 재상의 뜰에 나왔고, 무신의 지략을 잡아 왕실을 높이 부양하였으며,”는 기록은(나-⑥) 신라 국가와 왕실을 위한 김유신의 업적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음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다.

한편, 『삼국유사』의 김유신 관련 기록은 「기이」2의 「미추왕 죽엽군」, 「진덕왕」, 「김유신」, 「태종춘추공」, 「만파식적」과 권5, 「신주」 6, 「밀본최사」, 「명랑신인」조 등에 보인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설화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삼국사기』 「열전」의 경우, 태몽, 비정상적인 회임 기간, 사망 예언 등으로 비범성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그 존재의 성격은 현실세계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반면, 『삼국유사』의 경우는 환생이나 천상에서 하강과 복귀 등으로 현실세계와 비현실세계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어 초월적인 존재로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⁷⁾.

앞에서 말한 661년의 북한산성 전투가 『삼국유사』 권1, 「紀異」, 太宗春秋公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김유신이 경주 星浮山에 제단을 설치하고 神術을 다스리니 갑자기 큰 독만한 광채가 제단 위로부터 나와 별처럼 날아 북쪽으로 갔다.’고 서술하였다. 즉 『삼국사기』 「열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유신이 광채를 보내 천둥과 벼락을 내린 것처럼 서술하여, 김유신의 神異한 능력을 보다 확대·과장하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열전」으로, 다시 『삼국유사』로 가면서 갈수록 비현실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고, 이를 통해 김유신을 초월적 존재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¹⁸⁾.

17) 朴成柱·金秀旻, 2008, 앞의 논문, 198쪽.

『삼국유사』 「미추왕 죽엽군」, 「김유신」, 「태종춘추공」 등에는 김유신이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도 神異한 행적을 보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또 『삼국유사』 「밀본최사」에는 김유신이神通력이 매우 뛰어난居士를 아는 것으로 나온다. 『大東韻府群玉』에는 신라 말에 저술된 한문설화집인 『新羅殊異傳』을 인용하여 김유신에 대한 비슷한 성격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竹筒美女」는 동해에 사는 두 명의 미인을 아내로 맞아 대나무 통에 담아 서해로 간다는 나그네와 김유신이 만나는 이야기이고¹⁹⁾, 「老翁化狗」는 김유신이 집 밖에 있던 한 노인을 이끌어 자리를 마련하고 변신술이 여전한지 묻자 노인이 호랑이, 닭, 매로 변하다가 개로 변해 나가버렸다는 이야기이다²⁰⁾. 김유신이 도술 능력자 내지는 신비한 세계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유신 또한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인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²¹⁾.

신라 당대에도 김유신은 훌륭한 장수이자 신하로 인식되면서도, 한편으로는 神異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김유신행록』을 인용한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조, 설화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된 『삼국유사』, 한문설화집인 『신라수이전』에 김유신의 神異한 행적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김유신이 신기한 도술을 부릴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인식이 일반 민간에서 보다 널리, 보다 크게 퍼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Ⅲ. 고려시기

고려시기의 문헌에 김유신에 대한 사료는 그리 많지 않다. 『삼국사기』 「열전」의 김부식 史論이 고려시기의 김유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

18) 안영훈, 2004, 『김유신전 연구』, 민속원, 119쪽.

19) 權文海, 『大東韻府群玉』 권9, 「上聲」, 語字韻, 竹筒美女

20) 같은 책, 권12, 「上聲」, 有字韻, 老翁化狗

21) 안영훈, 2004, 앞의 책, 99~100쪽.

표적인 사료이고, 『고려사』와 『파한집』, 『동문선』, 『제왕운기』에 김유신 관련 사료가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다-① [사론(史論)] 당나라의 李絳(764~830, 당 헌종 때 충신)이 憲宗을 대하여 말하기를 “사특하고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고 충성되고 정직한 이를 나오게 하며, 대신과 더불어 말할 때는 공경하고 믿음 있게 하여 소인을 참여시키지 말며, 어진 이와 놀 때에는 친하되 예절 있게 하여 어리석은 자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참되도다! 이 말이여! 실로 임금의 정치에 중요한 도리이다. 그러므로 書經에 이르기를 『어진 이에게 말기어 의심하지 말며, 사특한 자를 제거하여 의심하지 말라.』하였다.

신라에서 유신을 대우함을 보건대 친근하여 틈이 없고, 일을 맡겨 의심치 않으며, 꾀를 내면 행하고 말을 하면 들어주어 그로 하여금 쓰이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였으니, 이른바 [주역] 六五童蒙의 吉함을 얻었다고 할만하다. 그러므로 유신이 그 뜻한 바를 행할 수 있게 되어 上國(당나라)과 협동 모의해서 3국을 합치어 한 집을 만들고, 능히 공을 이루고 이름을 날려 일생을 마치었다.

비록 乙支文德의 지략과 張保臯의 의용이 있어도, 중국의 서적이 아니었던들 기록이 없어져 알려지지 않을 뻔했는데, 유신과 같은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송하여 지금(고려)까지 끊어지지 않으니, 사대부가 알아줌은 당연하지만 풀 베고 나무하는 어린이까지도 능히 알고 있으니 그 사람됨이 반드시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²²⁾

- ② 29대 春秋王(태종무열왕)이 당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였구나! 庾信 金公이 공신이니 오묘한 兵書를 얻어 무예에 뛰어났도다!²³⁾
- ③ 신라 太宗王 때 이르러, 金庾信을 보내 당나라 장군 蘇定方과 함께 백제를 협공하여 멸망시켰다.²⁴⁾
- ④ 義慈王 때에 이르러, 신라가 김유신을 보내 당나라 장군 소정방과 함께 협공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²⁵⁾

22) 『삼국사기』 권43, 「열전」 제3, 김유신 하

23) 李承休, 『帝王韻紀』 卷下

24) 『고려사』 권56, 「지리지」 1, 廣州牧

- ⑤ 守司徒中書侍郎平章事 尹瓘을 行營大元帥로, 知樞密院事翰林學士承旨 吳延寵을 副元帥로 각각 임명하고 정예병사 30만 명을 거느리고 (여진) 정벌의 전권을 맡게 하였다. 尹公은 업적이 특출한 분으로 일찍이 김유신의 사람됨을 사모하며 말하기를 “김유신이 (전쟁할 때) 6월에 강물이 얼어 三軍을 건너게 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으로써 이루어진 것일 뿐이니, 나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그의 지성이 감응하여 신령스럽고 기이한 기적이 자주 들렸다.²⁶⁾
- ⑥ 깊은 가을 해 지는 北濱城[강릉]에서
 앉아서 湖山 대하니 무한한 정 담겼네.
 壯士는 神氣가 있어 칼에다 주문 외고 ……
 [壯士는 김유신이다. 유신이 입산하여 칼에다 주문을 외우니 角星의 빛이 내리 비쳐 그 칼이 단단해졌고, ……]²⁷⁾
- ⑦ 鄭樞의 詩에, “대관령 동쪽은 천하에 드문 경치이니, 溟州 고목에 피꼬리 어지러이 나네. …… 花浮山은 꾸불꾸불 무성한 빛이어라. 김유신 장군은 참 영웅일세, 천년토록 우뚝하고 기이한 공이여.” 하였다.²⁸⁾
- ⑧ 胎靈山이 있다[신라 때에 만노군 태수 金舒玄의 아내 萬明이 金庾信을 낳고 그 태를 이 현 남쪽 15리에 묻었는데, 변하여 신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태령산이라 이름하였다. 신라 때부터 사당[祠宇]을 설치하고 봄과 가을에 향을 내려 보내 제사를 지냈으며 고려에서도 그대로 시행하였다].²⁹⁾

사료 다-①에서 김부식은 ‘신라왕실에서 김유신의 능력을 믿고 전적으로 일을 맡겼기 때문에 김유신이 자신의 뜻한 바를 행할 수 있게 되어 고구려·백제를 합쳐 한 국가로 만들었다고 하여, 신라왕실과 김유신의 관계를 강조하며 고려 인종과 자신의 관계를 비유했다. 즉 능력 있는 신하인 김유신을 신라 왕실이 믿고 일을 맡겨 고구려·백제를 멸망시켜

25) 『고려사』 권56, 「지리지」 1, 扶餘郡

26) 『고려사』 권96, 「열전」 9, 윤관

27) 鄭樞, 『圓齋先生文稿』 卷上, 「詩」, 次江陵官舍韻

2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릉대도호부, 古跡

29) 『고려사』 권56, 「지리지」 1, 鎭州

신라를 크게 번성시킬 토대를 마련했던 것처럼, 인종 또한 능력 있는 김부식 자신을 믿고 일을 맡겨달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³⁰⁾

김부식의 사론에 따르면 고려시대까지도 김유신을 칭송했다고 한다. ‘사대부는 물론이고 풀 베고 나무하는 어린이까지도 능히 알고 있었다.’는 말은 상투적인 표현으로 약간의 과장도 섞여 있는 것 같다. 다만 일반 민간에서도 김유신이 신기한 도술 능력을 가졌다고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제왕운기』에는 김유신이 “오묘한 병서(兵書)를 얻어 무예에 뛰어났도다.”라고 하여 김유신이 병법에 뛰어났고 무예가 오묘했음을 강조했으며(다-②), 김유신이 당나라와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고려사』에 기록했다(다-③·④). 또 『고려사』 「열전」에는, 윤관이 김유신의 神異한 능력은 매사에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었다고 평가했는데, 윤관도 김유신을 본받은 결과 지성이 감응하여 신령스럽고 기이한 기적이 나타났다고 한다(다-⑤).

그래서 고려 말의 鄭樞(鄭公權, 1333~1382)는 “壯士는 神氣가 있어 칼에다 주문 외고”라며 김유신이 神氣가 있었다고 읊었고(다-⑥), “김유신 장군은 참 영웅일세, 천년토록 우뚝하고 기이한 공이여.”라며 천년 동안 우뚝 서는 기이한 공적을 세운 영웅이라고 칭송했다(다-⑦).

고려시기 김유신에 대한 이러한 평가와 인식은 신라 때의 평가나 인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김유신이 태어난 진천에는 김유신의 태를 묻었다는 태령산이 있는데, 신라 때부터 이곳에 사당을 짓고 봄·가을에 국가에서 향을 내려 보내 제사를 지냈고, 고려 때에도 이 제사가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이다(다-⑧). 김유신을 ‘홍무대왕’으로 추봉할 정도로 추앙했던 신라 때에 지냈던 국가 제사를 고려 때에도 그대로 지속했다는 점은 김유신에 대한 인식이나 위상이 고려 때에도 크게 변함이 없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30) 李康來, 1996,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362~364쪽.

한편, 김유신과 관련하여 天官女에 대한 시와 설화가 전한다. 김유신이 여자 종의 집[女隸家]에 목자 이를 안 어머니가 김유신을 혼계했고,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한 김유신이 술에 취해 말을 뺏는데 말이 그 창녀의 집[娼家]의 집에 이르자 김유신이 말의 목을 베었고, 원망한 그녀가 노래 한 곡조를 지었으며, 경주의 天官寺가 그녀의 집이라는 이야기이다³¹⁾. 이 이야기를 소재로 李公升(1099~1183)이 지은 「天官寺」라는 시가 전하고 있는데³²⁾, 고려 당시에는 김유신과 천관녀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회자되고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김유신이 분발하게 된 계기를 천관녀와 어머니의 교훈이라는 소재를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은 아니었을까 추정할 수 있다.

IV. 조선시기

1. 태종무열왕 · 문무왕과 신하 김유신

김유신에 대한 조선시기의 기록은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는 물론이고 『신증동국여지승람』, 『東京雜記』 등과 각종 문집에 김유신의 행적과 유적, 또는 인물평 등이 실려 있다. 그러한 기록 가운데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김부식이 史論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왕과 신하의 관계에 주목한 견해이다.

세조 2년(1456) 梁誠之(1415~1482)가 상소를 올려 前代의 임금과 宰相을 제사할 것을 아뢰면서, 신라의 시조 · 태종왕 · 문무왕 등 12位를 습제하고, 신라의 김유신 · 김인문 등을 배향하도록 요청했다. 김유신을 태종무열왕 · 문무왕의 재상으로 배향하게 한 것이다³³⁾.

두 왕과 김유신의 관계를 언급한 기록으로 종종 때 이종익의 상소가

31) 李仁老, 『破閑集』 卷中

32) 『東文選』 제12권, 「七言律詩」, 天官寺

33)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1456) 3월 28일 丁酉

더 생생하다. 중종 27년(1532) 3월 1일, 생원 이종익이 상소를 올려 태종 무열왕과 김유신의 관계를 중종과 영의정 朴元宗에 빗대면서 박원종의 공을 잊지 말라고 아뢰었다. 즉 김유신이 태종무열왕을 도와 동서로 정벌하면서 왕국을 안정시켜 위대한 업적과 무거운 인망이 고금에 비할 데 없다고 평가하면서, 뒷날 손자가 태종의 손자에게 죽임을 당하자 무덤에서 회오리바람이 일어 태종의 능에 이르러 ‘내가 호국신이 되었는데 내 자손이 죄 없이 죽임을 당했으니 떠나겠다.’고 하자 태종이 만류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³⁴⁾. 이것은 중종반정을 일으켜 중종을 왕위에 즉위시킨 박원종과 그 후손들을 대우하라는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것이다.

조선후기 영조 때에도 柳儼이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이 김유신을 등용하여 ‘統三’의 기틀을 세우고 ‘統三’의 공적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즉 영조 5년(1729) 9월 7일, 유엄이 “태종왕은 김유신의 현명함을 얻어 능히 ‘統三’의 기틀을 세울 수 있었고, 문무왕은 능히 그 왕위를 이어 끝내 삼국통합의 공을 이루었으니 가히 盛하다고 할 만합니다.”라고 했고, 이어 “김유신이 임종 때에 한 말은 현명하여 군자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하라고 했으니 실로 千古 동안 지극히 경계해야 할 말입니다.”라고 영조에게 아뢰었다³⁵⁾.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이 현명한 신하 김유신을 등용하여 ‘삼국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현명한 신하를 등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영조에게 아뢰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유엄은 김유신이 죽기 전에 찾아온 문무왕에게 남긴 유언을 강조했다. 김유신은 문무왕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성공이 쉽지 않음을 아시고, 守成이 또한 어려움을 생각하시어, 소인을 멀리하고 군자를 가까이 하시어, 위에서는 조정이 화목하고 아래에서는 백성과 만물이 편안하여 화란이 일어나지 않고 국가의 기반이 무궁하게 된다면 신은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³⁶⁾고 한 말에 주목

34) 『중종실록』 권72, 중종 27년(1532) 3월 1일 庚戌

35) 『승정원일기』 영조 5년(1729) 8월 19일 辛酉

36) 『삼국사기』 권43, 「열전」 3, 김유신 하

한 것이다.

姜再恒(1689~1756)도 김유신의 유언에 주목하고, “생각건대 유신이 임종 때 한 말은 임금에게 고하는 大體를 깊이 얻었다고 이를 만하다. 비록 두 차례의 出師表도 거의 이보다 더하지 못할 것이다. 장수와 정승으로 출입하면서 그 임금을 도와 통일의 업을 이룬 것은 마땅하다.”³⁷⁾고 하여, 그의 유언이 제갈량의 출사표보다도 더 낫다고 하면서 신하로서 김유신이 임금을 도와 통일의 대업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했다.

김유신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가장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崔溥(1454~1504)의 평론이다. 최부는 김유신과 같은 재주 있는 인물이 태종무열왕과 같이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임금을 만나 큰 공적을 세웠다고 하면서 김유신이 신라 왕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까지 평가했다.

마. 예로부터 영웅호걸의 선비는 비상한 재주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는 임금을 얻지 못하고, 비록 일을 할 임금을 얻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할 수 있는 때를 얻지 못한다. 비상한 재주가 있으면서 일을 할 임금을 얻었고 일을 할 수 있는 때를 얻어 세상에서 드문 공을 이룩한 자는 김유신에서 볼 수 있다. …… 인심은 혼란을 싫어하고 다스려지기를 염원하여 하늘이 武烈을 내어 널리 백성을 구제하려고 유신이 때맞추어 태어나니 遭遇가 기특하다.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충성과 의분한 마음으로 백제의 英偉한 方略을 帷幄에서 책략을 세워서 실책이 없도록 꾀하여 동서로 정벌하여 바람 번개가 몰아치듯 하여 향하는 곳에 적이 없었다. …… 저와 같이 전후 수십 차례의 전투에서 일찍이 패배한 적이 없었고, 승전보가 계속 이어져 공이 이미 적지 않았다. 백제를 정벌하여 의자왕이 항복하고 고구려를 정벌하여 高臧[보장왕]을 사로잡아 통일의 공을 이룰 수 있었다. 그의 임금으로 하여금 東韓의 땅을 다 차지하게 하였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의 근심을 영구히 면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지위는 장상을 겸하여 한 몸이 국가의 안위를 책임졌던 것이 20여 년이었다. 우뚝이 국가의 長城이 되었는데, 어찌 이른바 그가 재능이 있다고 하지 않고 올바른

37) 『立齋先生遺稿』 권9, 「雜著」, 東史評証, 三國

임금을 만나고 때를 만나 공을 이룬 자라 하겠는가? 하물며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보니 군자를 친근히 하고 소인을 멀리하였던 것이다. 임종 시에 한 말에서는 참으로 대신이 임금에게 고하는 대체를 얻을 수 있다. 그 고생과 위태함을 고루 겪었고 鞠躬盡瘁하여 공명과 충절이 시종 모두 온전하였다. 유신 같은 자를 신라 9백 년의 인물에서 구하면 또한 그 짝을 찾기가 드무니, 아! 어질도다.³⁸⁾

올바른 임금인 태종무열왕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유신 개인의 재능이 출중했기 때문에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또 군자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하라는 유언을 남긴 것 또한 임금에게 아뢰는 요체였다고 하면서, 김유신은 공명과 충절이 모두 뛰어난 인물로 신라 최고의 인물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김유신에 대한 이러한 인물평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며 사당에 모시자는 논의로 이어졌다.

그런데,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태조 7년(1398)에 충청북도 진천의 태령산에서 김유신에 대해 지냈던 국가제사를 정지하고 소재처 관원이 대신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즉 “胎靈山[신라 진평왕 때 만노군 태수 김서현의 아내 만명이 아이를 밴 지 20개월 만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유신이라 하였다. 태를 현의 남쪽 15리에 묻었는데, 神이 되었다 하여 胎靈山이라 이름하였다. 신라 때부터 사당을 두고 (나라에서) 봄·가을에 향을 내리어 제사를 지냈으며, 고려에서도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않았다. 본조 태조 무인(戊寅, 1398)에 이르러 비로소 국가제사를 정지하고 소재처 관원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속칭 胎山이라고도 한다].”³⁹⁾고 했다.

신라 때부터 고려 말기까지 진천현 태령산의 김유신 사당에서 국가제사를 지내오다가 조선 태조 7년에 이르러 국가제사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왜 이때 김유신에 대한 국가제사를 취소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

38) 『錦南先生集』 권1, 「東國通鑑論」, 太夫舒發翰金庾信卒

39)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 진천현

만, 태조 때 국가제사 전반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지된 것 같다. 또 김유신을 태종이나 문무왕 사당에 배향하자는 논의는 태령산에서 지냈던 김유신에 대한 국가제사가 정지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2. 김유신에 대한 인물평

김유신은 대체로 신라 왕조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로 반드시 지적되기도 하고, 또 중국의 인물과 비교할만한 인물로 인식되었다.

- 바-① (예조판서) 남곤이 아뢰기를, “만일 큰 공렬이 있는 사람으로 김유신·최충 같은 사람들을 가린다면 많지 않겠지만, 한때 큰 환란을 막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했다.⁴⁰⁾
- ② 상이 말하기를 “경주의 인물 가운데 누가 걸출한가?” 하니, 洪啓禧가 “…… 文으로는 최치원이고, 武로는 김유신입니다.”라고 아뢰었다.⁴¹⁾
- ③ 상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 당상·삼사를 인견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조그마한 연못에서 자란 고기와 같아 중국 사람과 같지 않으니 참으로 風氣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다만 김유신과 정몽주가 있을 따름이다.” 하였다.⁴²⁾
- ④ 우리 동방은 멀리 바다 밖에 있으나, 箕子 이후로 詩書의 풍속이 융성해졌다. 그리하여 신라 때에는 당 태종이 김유신·김인문의 풍도를 듣고서 군자의 나라라 하였고, 고려 때에는 김부식·박인량·김근·이자량 등이 송나라에 들어가서 文雅로써 번갈아 울리어 송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小中華라 일컬었다. 그리고 민지·정가신은 또한 원 세조에게 칭찬을 받았고, 先正臣 益齋(이제현)는 중국의 사대부들에게 크게 推重을 받았으니, 누가 해외의 후미진 구석이라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던가?⁴³⁾
- ⑤ 우리나라 나라는 궁벽한 곳인데, 인물이 중국에 미치는 못하게 됨은 당연하다. 장수감을 논하면 매양 을지문덕·양만춘을 으뜸으로 한다. 대개

40)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1519) 8월 1일 壬戌

41) 『승정원일기』 영조 44년(1768) 2월 1일 己未

42) 『선조실록』 권48, 선조 27년(1594) 2월 4일 癸丑

43) 金宗直, 『佔畢齋集』 제1권, 送李國耳赴京師序

두 사람이 대적한 것은 비록 모두 대국이라 하더라도 一戰一守의 업적에 불과하다. 김유신 같은 자에 이르러서는 忠義와 智略으로 마침내 당나라 군사와 협조할 수 있어 삼한을 통합하였다. 이는 거의 郭汾陽⁴⁴⁾과 徐中山⁴⁵⁾에 버금가니, 동방에서 한 사람 뿐이다.⁴⁶⁾

- ⑥ 신라의 金角干[김유신]과 고구려의 을지문덕 같은 사람은 큰 환난을 이겨내 그 공이 삼한을 뒀었다. 비록 옛날의 名將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를 뛰어넘는 자가 없다.⁴⁷⁾
- ⑦ 내 일찍이 들으니 신라에 만노군이 있는데, 대각간 김유신이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무릇 신라는 삼국에서 땅은 가장 작았으나 병력은 가장 강하여서 마침내 고구려와 백제를 통일할 수 있었다. 김각간이 장수가 되어 그 명성이 중국에까지 알려졌다.⁴⁸⁾
- ⑧ 또 조칙을 내리기를, “신라 시대를 생각하면 위인의 뛰어난 공적이 있어서 천년이 되도록 큰 감흥이 생긴다. 신라의 각간 김유신의 무덤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는 동시에 무덤으로 가는 길을 보수하게 하라.” 하였다.⁴⁹⁾
- ⑨ 예전의 인물은 이따금 걸출하게 빼어난 자가 있었다. 신라의 김유신, 고구려의 을지문덕과 을파소, 고려의 강감찬 같은 사람은 본조에는 아직까지 없다.⁵⁰⁾

중종 때 예조판서 남곤은 신라와 고려를 대표하는 인물로 김유신과 최충을 들고 있다(바-①). 영조 때 홍계희는 신라의 인물로 文으로는 최치원, 武로는 김유신이라고 답했으며(바-②), 순종 또한 신라의 위인으로

44) 이름은 郭子儀. 당나라 숙종 때 안록산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분양왕에 봉해졌으며, 평생 벼슬생활과 가정생활에 단 한 번의 액운도 없었음. 늙어서는 만복을 누리 부귀공명의 표본이 되었음

45) 이름은 徐達. 명나라 태조를 따라 사방을 정복함

46) 朴世采,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권54, 「雜著編錄」, 隨筆錄, 丁未 12월 12일 始錄

47) 洪良浩, 『耳溪先生集』 권10, 「序」, 海東名將傳序

48) 같은 책, 권12, 「記」, 萬弩門記

49) 『순종실록』 권3, 순종 2년(1909) 1월 8일.

50)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권15, 「書」, 與任景文, 甲午 3월

뛰어난 공적이 있어 천년 동안 감흥을 주는 김유신이라고 하면서 그의 무덤을 보수하게 했다(바-⑧).

이렇게 김유신은 신라의 武를 대표하는 인물에서 신라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칭송되었는데, 더 나아가 중국의 인물들에게도 비견될만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즉 조그마한 연못에서 자란 고기와 같은 우리나라 사람과 달리 중국 사람과 같은 인물로 정몽주와 함께 김유신을 들고 있으며(바-③), 당나라 태종이 김유신과 김인문의 풍도를 듣고 신라를 군자의 나라라고 평하게 만들었고(바-④), 김유신 정도 되어야 충의와 지략으로 당나라 군사와 협조하여 삼한을 통합할 수 있어 괄분양과 서중산에 버금가는 장수감으로 동방에서 김유신 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받았다(바-⑤). 또 장수 김유신의 명성이 중국에까지 알려졌다고 했다(바-⑦). 그래서 洪良浩(1724~1802)는 큰 환난을 이겨내고 삼한을 덮는 공을 세운 김유신이 옛 장수이지만 아직까지 그를 뛰어넘는 자가 없다고 했으며(바-⑥), 洪直弼(1776~1852)도 김유신 같은 사람은 조선왕조에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바-⑨). 김유신이 신라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중국의 인물들에 버금가는 장수감이며, 조선왕조에는 비교될 만한 인물이 없다고 평가되었던 것이다.

3. 장수 김유신

김유신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물론 그의 뛰어난 군사적 재능에 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김유신은 兵法에서도 뛰어났고 쇠뇌와 같은 훌륭한 무기를 활용했다고 일컬어졌다.

徐居正(1420~1488)은 김유신을 제갈량에 비유했고 魚世謙(1430~1500)은 “장군은 나라와 安危를 함께 했으니, 일백 번 戰場에서 매번 기이한 계책을 냈네. 일어나 강한 이웃 나라를 멸하기를 엿드려 물건 줍는 듯이 하여, 길이 壯士로 추모하게 하네.”라고 추앙했다⁵¹⁾. 그가 이렇게 제갈량과 버금가는 기이한 계책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방법에 매우 뛰어났기

때문으로 이해했다. 李承召(1442~1484)는 “마음속에 품은 병법은 八陣보다 깊고 허리에 찬 창은 천금보다 가치 있네. 당나라 老將들이 모두 (김유신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 양국(고구려, 백제)의 잔약한 임금을 쉬이 사로잡았네.”라고 읊었고⁵²⁾, 兪好仁(1445~1494)은 “中嶽山 속에서 黃石公〔秦나라 말 張良에게 兵書を 주었다는 노인〕의 병법을 터득해 짐짓 이름이 천하에 가득 차게 했고, 손으로 神劍을 휘둘러 공훈을 세워 나라의 만 리 구름을 한꺼번에 씻었네. 영웅이 애 끊은 곳을 찾아보니 天官이 도리어 장군을 이긴 것 같네.”라고 하여, 김유신이 병법에 매우 뛰어났다⁵³⁾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金春澤(1670~1717)은 김유신을 강감찬과 함께 하늘이 낸 인재로서 術學을 행한 인물로 평가했다. “[하늘이 낸 인재로서 술학(術學)을 행하다] … 신라·고려 때에 이르러 김유신과 강감찬의 勳績은 이미 사람들의 눈과 귀에 남아 있으니, 그들의 재주와 술법 또한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이다⁵⁴⁾.

그 결과 김유신은 우리나라의 武成과 武教를 대표하는 인물로 사당에 모셔져야 한다고 평가되었다. 양성지는 “武成廟를 세워 …… 신라의 김유신, 고구려의 을지문덕, …… 을 배향하게 하소서.”라고 상소했으며⁵⁵⁾, 李瀾(1681~1763)은 “文과 武는 그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다. …… 文敎와 武敎는 아울러 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武敎가 너무도 소략하므로 한번 외적의 침략이 있게 되면 항복 귀부해 애걸하는 것을 檀公의 上策⁵⁶⁾으로 삼는다. 만일 무교를 권장하고 흥기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근

5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慶州府」, 題詠, 過庾信墓

52) 李承召, 『三灘先生集』 권4, 「詩」, 過胎靈山

53) 兪好仁, 『潘谿集』 권2, 「七言小詩」, 過鎮川 有懷金庾信

54) 金春澤, 『北軒居士集』 권18, 「恩歸錄」, 文, ○策, 擬策問三首示兒

55)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1456) 3월 28일 丁酉

56) 위기를 신속하게 면하는 것을 비유한 말. 단공은 南朝 宋 때의 장군 檀道濟를 말함. 그가 일찍이 魏나라와 싸우다 불리하자 退軍을 주동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王敬則이 일찍이 말하기를 “단공의 三十六計 가운데 走가 상책이었

본을 높여야 하니, 武成王의 사당을 어찌 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비록 武成王의 사당을 여러 고을에 다 세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먼저 京師에 세워 옛 名將 및 우리나라의 김유신·강감찬·이순신을 배향하고 武經博士를 두어서 수시로 익히게 하면 거의 흥기할 것이다.”라고 하여⁵⁷⁾, 김유신은 武教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武成王의 사당에 배향해야 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김유신의 군사적 능력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 더욱 높이 평가되었다. 김유신 같은 인물이 나와 倭와 女眞을 물리쳐주기를 바랐으며, 조선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논의를 할 때도 김유신이 거느렸던 萬弩郡의 쇠뇌부대가 언급되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었던 선조 26년(1593) 6월 17일 劉 員外가 글을 보내, 용맹 있는 장사를 등용하여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熊羆 같은 재주를 가졌다고 칭할만한 자가 없고 김유신과 김취려 같은 인재는 없다.’고 하여⁵⁸⁾ 전쟁 중에 김유신 같은 인재가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임진왜란을 당한 비참한 상황에서 具思孟(1531~1604)은 “어찌하면 김공을 묘에서 다시 일으켜 翠華를 호위하며 오랑캐를 소탕할꼬.[김유신묘는 성 밖 서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곳에 있는데, 그때 남쪽과 북쪽의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結句에서 이를 언급하였다.]”⁵⁹⁾고 하여 임진왜란을 당한 상태에서 북쪽의 여진족까지 걱정하며 김유신이 다시 나타나 남북의 오랑캐를 소탕해주기를 바랐다.

成渾(1535~1598)도 “섬 오랑캐들이 날뛰어서 사람들을 도륙하여 죄가 하늘에까지 통하니, 하늘이 반드시 이들을 멸망시킬 것이나 우리의 국력이 강하지 못한 탓에 군사들이 제대로 싸우지 아니하여 모든 성이 붕

다.”고 한 데서 온 말임(『南齊書』, 王敬則傳(홍무대왕 김유신 선양회, 2013, 앞의 책, 345쪽)

57) 李瀾, 『星湖全書』 제5책, 「僊說」 권8, 人事門, 武成王廟

58) 『선조실록』 권 39, 선조 26년(1593) 6월 17일 庚子

59) 具思孟, 『八谷先生集』 권1, 「七言律詩」, 次雞林客館韻

괴되었는바, 예로부터 어떤 衰微한 세상이라도 지금처럼 혹독한 적은 있지 않았습시다. 나라가 망하는 화는 실로 우리 자신이 취한 것이니, 어느 때에나 하늘이 김유신과 강감찬처럼 충의로운 영웅호걸의 신하를 탄생시켜 요망한 기운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큰 수치를 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시다.”⁶⁰⁾라고 한탄하며, 김유신과 같은 인물이 나와 倭賊을 물리쳐 주기를 기대했다. 김유신의 군사적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조선후기에도 군사력 강화의 방법을 논의하면서 김유신의 만노군 부대와 쇠뇌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영조 원년(1725) 9월 9일, 장흥 출신 김성대가 상소하여, 用兵의 방법으로 器械를 사용하는 것이 으뜸이라는 제갈량의 말을 인용하면서 ‘100步에도 미치지 못하여 멀리 나가지 못하는 片箭보다 나은 것이 500보까지 미치는 古人之 弓弩法이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줄을 당겨 萬弩를 모두 발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신라 김유신이 여러 적을 평정한 데에는 이것에 의지하여 힘을 얻었던 것인데, 代가 멀고 사람이 죽어 책에도 남아 있지 않고 기계도 없어서 다시 이것을 풀 수 있는 자가 없다.”⁶¹⁾고 한탄하는 내용이 나온다. 김유신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한 데에는 萬弩軍 부대를 이끌고 다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정조 21년(1797) 9월 18일, 정지원이 상소하여 북방의 경계를 튼튼히 할 방도를 아뢰면서 다시 김유신의 쇠뇌에 대해 언급하였다. “前史를 살펴보니 伏弩와 連弩로 승리한 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우리 동방의 신라 때에 김유신 또한 連弩의 법으로 고구려 10만 무리를 깨뜨렸으니, 우리 동방에도 이 연노법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없다.”⁶²⁾고 탄식하였다. 김유신이 連弩의 법을 써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는 인식이 조선후기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김유신의 병법 계책이나 지략 등을 높이 평가했는데, 조선의

60) 成渾, 『牛溪先生續集』 권5, 「簡牘」, 與沈士訥宗敏, 丁酉 9월

61) 『승정원일기』 영조 원년(1725) 9월 9일 癸卯

62) 『승정원일기』 정조 21년(1797) 9월 18일 甲申.

왕으로서는 유일하게 김유신을 위한 祭文도 남겼다. “아! 奉常卿이여! 크게 신라를 도왔으니, …… 크나큰 계책과 지략은 유일무이한 것이었으니, …… 병사들이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혔으니, 당 태종이 가상하다 칭찬하고 상경의 지위를 주었네. 이름을 우주에 드리워 靑史에 드러나 보이니, 성대한 공로가 있어 자손에게 미치지 이르렀네. …… 금관의 옛 시조 왕릉에 마침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는데, 공이 실로 그 자손이니 일체로 경건히 제사를 받드네. 나의 祭物과 단술을 흠향하고 우리에게 복이 번성하도록 도우소서!”⁶³⁾라고 하여, 김유신의 계책과 지략이 유일무이한 것이었고 당나라 태종이 그의 공적을 가상히 여겨 奉常卿의 지위를 내려주었으며, 조선의 복이 번성하도록 도와달라고 제문을 올렸다.

4. 충신 김유신

태종무열왕·문무왕과 김유신의 관계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김유신은 신라의 충신이라고 인식했다. ‘충신’이라는 인식은 성리학적 규범을 기준으로 인물을 평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조는 諸王의 능묘를 수리하라는 教를 내리면서 ‘前代의 忠臣인 신라의 김유신과 김양 등의 무덤을 봉분해주고 나무를 심고 초목을 금하라고 했고⁶⁴⁾, 광해군도 “전대의 대표적인 충신으로서 신라의 김유신, 김양”의 무덤을 봉분해주고 나무를 심고 불과 벌채를 금하라고 傳敎했다⁶⁵⁾.

또 영조 46년(1770) 1월 29일, 洪纘海에게 職官考를 읽게 했는데 신라 김유신의 일에 이르러, 영조가 “이 사람은 충신이다. 고려 때에 이르러三公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비워두었다. 이것은 관직에는 반드시 (사

63) 『弘齋全書』 권22, 唐奉常正卿新羅興武公金庾信墓致祭文

64) 『선조실록』 권146, 선조 35년(1602) 2월 5일 戊辰 ; 『선조실록』 권166, 선조 36년(1603) 9월 9일 壬戌

65) 『광해군일기』 권25, 광해군 2년(1610) 2월 6일 壬子

람을) 갖출 필요가 없으니 오직 그 마땅한 책임자이어야 한다는 뜻이다.”⁶⁶⁾라고 했다. 즉 김유신은 충신이며 삼공에 해당하는 인물로 그 마땅한 책임자였다고 보았던 것이다.

성리학적 관점에서 김유신을 평가하는 것 가운데, 영조가 비담의 난 때 김유신이 선덕왕에게 한 말과 비령자의 예를 들어 긍정적으로 언급한 기록이 있다. 영조 5년(1729) 8월 19일 『동국통감』을 읽으면서 영조와 신하들 사이에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⁶⁷⁾. 비담의 난 때 김유신이 선덕왕에게 ‘德은 요망함을 이깁니다. 變異는 죽히 두려워할만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영조가 “유신이 ‘덕이 요망함을 이긴다.’고 한 그 말은 참 좋다. 단지 변이가 죽히 두려워할만하지 못하다는 설은 알지 못하겠다.”고 하자 柳儼이 왕안석의 ‘天變은 죽히 두려워할만하지 않다는 설’을 들면서 김유신의 말은 힘껏 힘쓰라는(勉勵)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대답했다. 영조는 “진실로 덕을 닦으면 어찌 요망함을 이길 수 없는 것을 근심하겠는가?”라고 했고, 유엄이 다시 김유신의 명으로 싸우다 죽은 丕寧子를 예로 들면서 “신하는 임금을 위해 죽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죽고 노비는 주인을 위해 죽는 것은 고금에도 드문 일이니, 즉 여기에서 신라의 풍속이 아름답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자, 영조가 그렇다고 하면서 이것은 모두 삼강행실에 나온다고 이야기했다. 『삼강행실도』의 「丕寧突進[新羅]」에는 『삼국사기』 열전의 비령자⁶⁸⁾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다⁶⁹⁾.

반면,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한 것과 김유신의 처가 비구니가 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서거정은 “김유신을 追封하여 興武大王이라 하였다. 신 등은 살펴보건대, ‘신하의 직분으로는 당연히 충성을 하는 것

66) 『승정원일기』 영조 46년(1770) 1월 29일 丁未

67) 『승정원일기』 영조 5년(1729) 8월 19일 辛酉

68) 『삼국사기』 권47, 「열전」, 丕寧子[子舉眞奴合節附]

69) 김정수, 2010, 『역주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21~122쪽·135~136쪽.

입니다. 김유신이 신라에 있어 공이 크기는 하나, 周公이 큰 공훈이 있다 하여 成王이 魯나라에 重祭⁷⁰⁾를 지내게 해 준 것도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追封하여 왕으로 삼아서 임금과 신하의 名分을 문란하게 한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이는 禮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⁷¹⁾라고 하여,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김유신을 ‘홍무대왕’에 봉한 것은 임금과 신하의 명분을 문란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영조 5년(1729) 9월 8일, 유엄이 ‘김유신도 현명한 신하이므로 그 처도 현명한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으니, 습속이 사람을 물들임이 이와 같은데, 이것은 그 임금이 능히 불교를 배척하지 못해 宰臣의 처도 또한 이와 같이 된 것이니 풍속에 힘쓰는 방법을 알지 못한 것이니 가히 후세의 감계가 될 만한 것입니다.’⁷²⁾라고 아뢰어, 신라의 불교 숭배와 김유신 처의 출가를 비판했다⁷³⁾.

V. 맺음말

신라 이후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김유신은 신라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로 인식되었고, 한편에서는 神異하고 도술적인 능력을 갖춘 인물로도 인식되었다. 김유신은 살아 있을 때는 물론이고 죽은 후에도 신

70) 천자가 그 始祖의 묘에 올리는 제사를 말함

71) 『東國通鑑』 권11, 「新羅紀」, 을묘년 흥덕왕 10년(835)

72) 『승정원일기』 영조 5년(1729) 9월 8일 己卯

73) 조선시기의 김유신 관련 기록 가운데 김유신이 神異하고 도술적인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東京雜記』 권1, 「祈雨所」에는 비가 내리기를 바라며 제사를 지내는 기우소 가운데 ‘金角干墓’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시기에 김유신의 어머니 萬明을 무당들이 ‘萬明神’으로 받들고 모셨다는 기록이 있는데(『星湖全書』 제5책, 「僊說」 권4, 萬物門, 城隍廟 및 「僊說」 권13, 人事門, 下禱亡魂 ;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天地雜類, 鬼神說, 華東淫祀辨證說 및 「經史篇」, 論史類, 論史, 卵生辨證說), 아마도 김유신의 도술적인 능력을 그 어머니인 만명과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무당에게 전해졌기 때문인 듯하다.

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살아 있을 때는 태종과 문무왕을 보필하여 ‘일통삼한’의 대업을 이룩한 최고의 신하로 평가받았다. 당나라는 물론이고 고구려와 일본에서도 김유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죽은 뒤에는 태종을 도와 대업을 이룬 良臣 또는 聖臣이라고 인식되었고, 문무왕과 함께 二聖으로 추앙되었다. 불교적으로 33천의 한 사람이 내려온 것이 김유신이라고 인식되기도 했고, 신라 하대에는 ‘홍무대왕’으로 추봉되어 ‘武를 일으킨 대왕’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칭송되었다.

고려시기에는 신라 때의 인식이 그대로 이어져 진천 태령산의 사당에서 국가제사로 받들어졌다. 김부식은 김유신과 태종·문무왕의 관계를 빗대어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려 했을 만큼 김유신은 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큰 공을 이룬 인물로 평가되었다. 또 윤관은 김유신이 신령스러운 기적을 많이 일으킨 장수로 인식했고, 이승휴는 김유신이 오묘한 병서를 얻어 무예에 뛰어났다고 말했으며, 고려 말의 정추는 김유신이 천년토록 우뚝하고 기이한 공을 세운 영웅이라고 칭송했다. 김유신이 기이한 능력을 가진 장수로 큰 무공을 세웠다고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기에도 태종무열왕·문무왕과 신라 김유신의 절대적인 신임관계로 인해 김유신이 큰 공적을 세웠다는 평가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김유신은 신라의 武를 대표하는 인물이거나 신라 왕조 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되었고, 나아가 중국의 인물에 견줄만한 능력과 공훈이 있는 인물이라고 인식되었다. 조선에서도 김유신이 병법에 뛰어났고 쇠뇌와 같은 훌륭한 무기를 활용했다고 보았고, 특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김유신 같은 인물이 나타난 倭賊을 소탕해주기를 바라는 인식도 보였다. 김유신은 武成廟에 배향되거나 武教를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되었고, 정조까지도 김유신의 병법과 계책을 높이 평가하는 祭文을 짓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러한 김유신의 행적을 통해 성리학적 관점에서 충신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논문접수일: 18.08.30 / 심사완료일: 18.09.19 / 게재확정일: 18.09.28.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帝王韻紀』, 『破閑集』, 『東文選』, 『圓齋先生文稿』, 『東國通鑑』
『大東韻府群玉』, 『牛溪先生續集』, 『八谷先生集』, 『星湖全書』
『北軒居士集』, 『溜谿集』, 『三灘先生集』, 『梅山先生文集』, 『耳溪先生集』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佔畢齋集』, 『錦南先生集』, 『立齋先生遺稿』
『弘齋全書』, 『五洲衍文長箋散稿』

홍무대왕 김유신 선양회, 2013, 『홍무대왕 김유신과 江陵』, 강릉 : 홍무대왕
김유신 선양회

김정수, 2010, 『역주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朴成柱·金秀旻, 2008, 「金庾信關聯 文獻史料와 說話의 比較」 『新羅文化』
31

朱甫噉, 2007, 「金庾信의 政治志向-연구의 活性化를 기대하며-」 『新羅史學
報』 11

안영훈, 2004, 『김유신전 연구』, 민속원

李康來, 1996,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李基白, 1987, 「金大問과 金長淸」 『韓國史市民講座』 1

Abstract

Periodical Perceptions from Historical Materials for KIM Yoo-Shin / Park,
Chan-Heung (National Assembly Library)

Kim Yoo-shin was highly evaluated in Silla, not only when he was alive, but also after his death. When he was alive, he was regarded as one of the best servants who accomplished the task of 'Iltong-Samhan' by supporting King Tae-jong and King Mun-mu. Kim Yoo-shin was recognized as 'good servant' or 'sacred servant' who helped King Tae-jong even after he died. In addition, he was revered as 'two adults' with King Mun-moo. He was awarded the title of 'The Great King Heung-mu'. In the Goryeo period, it was supported as a national sacrifice in the shrine of Mt. Taeryeng of Jinchon. Kim Yoo-shin was regarded as a person who achieved great success with the absolute trust of King Tae-jong and King Mun-mu. In addition, Yoon-gwan recognized Kim Yoo-shin as a general who caused many miracles. Lee Seung-hyeo said that Kim Yoo-shin had a mysterious Military-Strategy Book and excelled in martial arts. Even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evaluation of Kim Yu-shin's success had been continued due to the absolute trusting relationship between King Taejong or King Mun-moo and his retainer Kim Yoo-shin. Kim Yoo-shin was either the representative of Silla's martial or the most outstanding figure in the entire history of the Silla Dynasty. Furthermore, he was recognized as a person with competence and aptitude comparable to Chinese characters. Kim Yoo-shin was superior in military strategy. Kim Yoo-shin was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of martial in Korea's history. From a neo-Confucian point of view, they evaluated him as a loyal person through Kim's achievements.

Key words: Kim Yoo-shin, The Great King Heung-mu, Samguksagi, Samguk Yusa, Goryosa,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